

# 미시시피氏의 結婚

Die Ehe des Herrn Mississippi

## 숭대극회 제29회 봄 정기공연

- ◆ 작/F·뒤렌마트 ◆ 기획/차세훈 ◆ 연출/김영덕
- ◆ 일시/83. 6. 20 ▶ 21 PM 4/7
- ◆ 장소/대학극장

## 격려사



총장 강신명

숭대극회는 1921년 “절세영웅 나폴레옹의 말로”라는 소인극으로 그 첫발을 내딛은 후 어느덧 60여년의 연륜을 쌓아오면서 국내 대학연극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공연작품은 몇년전 에쿠우스로 제1회 전국대학 연극축전 본선진출이란 영광과 숭대극회의 전통성과 긍지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그때 멤버와 연출팀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이번엔 뒤 렌마트작 「미시시피씨의 결혼」이라는 작품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숭대극회인들은 그때의 영광과 긍지를 다시금 누릴수 있었으면 합니다.

숭전인들이여 !

이번 작품을 위해 노력과 땀을 아끼지 않은 연출팀과 기획팀 그 리고 CAST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드림과 동시에 이들 숭대극회인들에게 영광이 내릴수 있게 함께 기도합시다.

## 극회장의 변



극회장 이용섭

온몸이 부서져라, 당골고, 가슴이 터져라  
피를 토하도록 소리 지르며  
등어리진 한을 풀어보고 싶어서  
땀덩어리가 되었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도 없읍니다.

숭대극회는 이번 작품을 연극을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보이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꿈과 깨의 만남, 그리고 헤어짐”



연출 김 영덕

동안 꾸며댔던 가지기지의 법과 정의, 과학, 종교들을 깨어버리기 시작했으니 벼랑 끝과 지랄이 온 세상을 들볶고 사람들을 대량으로 살륙하고 말았다. 밤잠을 뜯 눈으로 지새운 그간의 행위가 서슬퍼런 백일몽의 끝난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절규했다.

“있을 것이나, 없을 것이나!” 그것은 중대한 물음이기도 했으므로 해답을 찾아나섰다. 그러나 부딛쳤다. 기괴하게도 무엇과 충돌했는지 그 벽은 눈에 보이질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백색 종족들 스스로의 울티리는 명석판명한 그들 낯가죽 색보다 더 투명한 유리담장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들은 갇혀있었다. 그래서 용기있는 몇몇 사람이 그 벽을 깼다. 해답이 아니라 해방이 찾아져야 할 것이라는 걸 깨우친 것이다. 답답한 대낮의 꿈과 헤어진 그들은 이제 시원한 한밤의 깨에서 서로서로를 낯설게 했던 온갖 이성과 판단을 멍췄으면 했다.

그들의 역사가 피로해졌고 노쇠했기 때문이리라. 감시와 주시와 갇힘에서 풀려나온 그들의 고독은 그래도 용호해야 할 말미가 드러난다.

고향이 있다!

사람과 사람끼리의 만남,

세계와의 어우러짐, 몬(BODILY EVENTS)으로 가자.

## 연극에의 도전 = 작가소개

홀스트 비네크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를 어떤 특정한 연극운동이나 연극의 대변인으로 보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1945년 「연극의 제문제」에 관한 한 강연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이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리고 또 나를 요즘 연극무대 위에서 널리 유행 만연되어 있는 철학사상(그것이 실존주의, 허무주의, 표현주의, 풍자주의 이런 또는 문학평론계에 유포되어있는 그밖의 여러가지 달콤한 딱지가 붙은 여러 주의이건간에) 이중에서 하나를 골라 가방속에 넣고 여러분의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외관원으로 보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으로 본다면 무대란 잡다한 이론이나 철학사상 또는 선언문의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쟁터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 무대 위에서 여러가지 시도를 함으로써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수단이라 생각될 따름입니다. 물론 내 작품속에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들은 결국 어떤 신념과 철학을 갖기 마련이죠. (멍청이들만 잔뜩 등장시키면 작품이 지루해질 수 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서 말을 시키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뒤렌鸷트는 회곡 「유성」(The Meteor)이 1966년에 발표된 직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회곡이 이야기 줄거리 때문에 산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편견입니다. 등장인물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회곡을 쓴다는 것은 등장인물을 무대에 옮겨 놓는 일이지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들이 멋대로 줄거리를 전개시켜 나갑니다. 연극은 사람의 감각에 호소해야 합니다. 회곡은 구축된다기보다 오히려 작곡된다고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거의 음악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즉 공명, 상호관계, 대용물, 반전, 이러한 것들이 회곡의 구성을 결정 지우지요.」

스위스 사람이면 으레 그렇듯이 작가 역시 현실적인 사람이다. 사람들( 다시 말해서 등장인물)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 연극의 효과를 양양시키는가라는 문제와 긴박감 내면적 긴장상태, 아이러니, 그리고 알

려으로 가득차 있는 한 상황의 극적인 이점에 대한 현실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관객과 무대를 무시할 수 없고 더욱 그는 순전히 자기표현을 위해서만 글을 쓴다고 가장하지도 않는다. 그는 커다란 도의감을 가지고 글을 쓰는 작가 인데도 「도학자」라는 딱지가 붙는 것이 질색이고, 도덕상의 문제를 우스꽝스러운 말로 처리하기 일쑤다. 그리고 이 작가가 그렇게도 예민한 비극의 감각을 몸에 지니고서도 비극은 자기의 장기가 아니고 자기는 오히려 거창한 희극을 쓰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것이 정말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에 전적으로 이견을 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 그의 작품은 정말 「우스운」것이다. 하지만 이 「농담」은 우리 모두를 두고한 농인 것이다. 뒤렌鸷트의 인간 조건의 예민한 관찰은 흥미롭다기는 하나 유쾌한 것은 못된다. 그것은 또한 연극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나는 프리드리히 뒤렌鸷트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의 회비극 「방문」(The Visit)은 독일 무대에서 거의 상연 안 된 곳이 없고, 브로드웨이에서도 대성공이었다. 확실히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몹시 불리한 형편상에 허덕이고 있었다. 1921년 스위스의 베른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해당초 화가 아니면 교사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다가(그의 말대로) 창작활동이 너무나도 갑작히 밀어 닦쳤기 때문에 그는 학업을 끌마칠 시간의 여유를 얻지 못했다. 회곡 「방문」으로 대성공을 거두기까지 그는 많은 문학작품을 썼다. 실패도 많았지만 수 없는 격려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몇년전 까지만 해도 아직도 문젯점을 많이 내포한 작품으로서 초연을 넘어서지 못했던 작품들이 차츰 무대에서의 지위 확보와 극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된 역설적인 사건이 발생한 소재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연극에 대한 그의 애착심, 극적인 우스꽝스러움에 얹힌 갈등을 포착하는 재능, 숙련된 연극 기교, 그리고 특히 아이로니에 의해서 독특하게 표현된 때로는 소름 끼치는 경지로 유도되어 들어 가는 비극적 특성, 이 모든 것이 시초부터 그의 작품 속에서 감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특색을 잘 나타내 주는 작품으로 Römlus; Mr. Mississippi's Marriage; An Angel Comes to Babylon; Frank V; The Opera of a Private Bank; 「생리학자」(The Physicists)를 들 수 있다.

譯·編 千 杜 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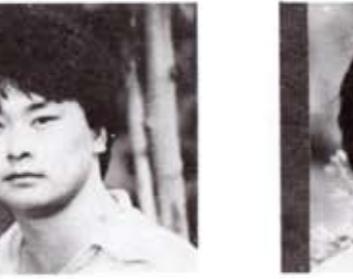
## Cast



미시시피 김 인보



아나스타샤 문 경애



생클로드 홍 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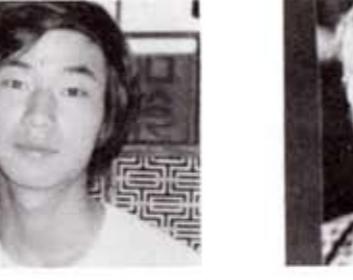
위밸로에 이 영구



디에고 전 석근



루크레치아 박 경



위버후버 백 윤현



사나이 위 성신



## 기획의 변



기획 차 세 훈

어느 아침나절 부는 바람을  
주전자 깊숙히 끓는 물소리를 들으며  
초조히 기다리던 어릿광대  
가쁘게 숨쉬는 주전자 속 마음과  
내가 너 아닌것이 네가 나 아닌것과  
내가 너의 아픔을 모름이 네가 나의 아픔을 모르는 것과  
이 모든 것에 상처입은 몸뚱이  
햇빛에 바래인 가득한 허울  
그는 상처입은 어릿광대인 것이다.  
어느날엔가 수평한 아스라히 먼곳에 고향을 보았기에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하여  
뜨거운 모래 바닥을  
삼백 예순날 하염없이 뛰어다녔다.  
그러나,  
바람은 불어도  
불어오는 듯 하여도  
비릿한 바다의 내음과  
짜디 짜 소금바람뿐  
이젠 이미 지나가버린 바람이기에  
바다로 흘러버린 어릿 광대는  
모래속에 발목을 잡기우고  
오늘도 껌이 껌이 목을 놓아  
바람을 부르리라!  
벌거벗은 몸뚱이 바람에 실어  
흘러가리라.  
흐르리라!

## Staff



무대감독 이 정남



조연출 오 정열



무대미술 정 효민



소품 김희명



분장 장 성수



효과 류 영록



조명 김 창규



진행 이 재영

# 공연연보

回	年	作	品	名	演	出
	1921년 6 : 13	연극회 소인극	"천체영웅 나폴레옹의 말로"			
	1923년 7 : 7, 21	전현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후" "기제인간"			
	1923년 7 : 28, 29	"소인현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2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 : 10	"의자들"	이호세스코 作	이태주		
4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 : 15	"聖者の 생활"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체		
6	1970년 10 : 28, 29	"勝負의 終末"	사류엘 · 베케트 作	김양기		
7回 演劇 鑑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천년복 살화" "담배해독에 豊해시" "황금단지" (로마극)	율별조 作 안문 · 쇄종 作 루라우터스 作	정중화 주정서 한영체 유근배	정중화 주정서 한영체 유근배	
	"고도를 기다리며"	사류엘 · 베케트 作	차현재			
	1971년 11 : 4, 5, 11	"저격병의 그림자"	선 · 오케이시 作	차현재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펜터 作	한영체		
10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 산의 결혼"	F. 위렌마트 作	고봉인		
11	1973년 10 : 25, 26, 27	"기도" (소극장) F. 아라벨 作		차현재		
12	1974년 5 : 25, 28, 30	"정의의 사람들" (전 5막)	A. 카뮈 作	정중화		
1	1975년 3 : 10, 11, 12	"아마와 품"	W. Arving 作 (신입생환영)	김홍수		
13	1975년 6 : 9, 10, 12, 13	"비올터의 산책" "도스또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안홍수		
14	1975년 10 : 29, 30, 31	"비단과 황화벌"	Max. Frisch 作	안홍수		
2	1976년 10 : 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백 作 (신입생환영)	김득남		

回	年	作	品	名	演	出
15	1976년 6 : 1, 2, 3	"인터뷰"	장 · 클로드 · 반 · 이탈리 作	김득남		
16	1976년 10 : 25, 26, 27, 28	"별"	장 · 클로드 · 반 · 이탈리 作	김영덕		
3	1977년 3 : 16, 17, 18	"술 빙"	윤대성 作 (신입생환영)	안홍수		
17	1977년 6 : 15, 16, 17, 18	"EQUUS"	피터 · 피퍼 作 백성식기획	김영덕		
18	1977년 10 : 10, 11, 12, 13	"EQUUS"	피터 · 피퍼 作 양영철 기획	김영덕		
19	1978년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 박영철 기획	김영덕		
20	1978년 10 : 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 · 피퍼 作 민승기 기획	김영덕		
4	1979년 3 : 29, 30	"벗"	이강백 作 (신입생환영) 한천 기획	정재호		
21	1979년 6 : 18, 19	"한강 2979"	김영덕 作 정재호 기획	이병국		
22	1979년 9 : 29, 10 : 2	"초 문"	오바식 作 이정일 기획	차정순		
23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 作 엄세범 기획	박양천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 作 이영환 기획	오세환		
24	1981년 6 : 12, 13	"노부인의 방문"	F. 위렌마트 作 이종규 기획	차정순		
25	1981년 11 : 12, 13, 14	"달맞이 꽃"	김영중 作 전석근 기획	차정순		
6	1982년 3 : 24, 25	"임금님위는 당나귀 퀴"	김용락 作 최시영 기획	이용섭		
26	1982년 6 : 12, 13	"카리굴라"	A. 카뮈 作 유태을 기획	지숙		
27	1982년 10 : 7, 8	- 헤도우박스 - M. 크리스토fer 作 전희식 기획	차정순			
7	1983년 4 : 16, 17	"블랙코비니"	피터페퍼 作 전희식 기획	홍미석		

## - 도와주신 분들 -

- 회화부 여러분
- 작곡 김광희씨
- 덕성여대 김은주씨
- 그외 여러분

악마같이 쓰고 천사같이 달콤한  
커피의 맛 맥심 캠퍼스

장승백이 ↑  
↓ 봉천동

승대정문

캠퍼스 ▲▲▲

# 한을 정성을 담습니다.

## 일신방직은 보다 성실한 제품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목화씨를 들여와 면(綿)의 옷을 입히주신 三優堂 文益漸(字:日新), 高麗末에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봇물 경속에 습격오신 목화씨 다섯살이 白衣 民族의 오랜 전통을 이끌어온 衣生活의 씨앗이었습니다.

세월은 바뀌어 면을 이용한 실과 옷감도 크나큰 발전을 하였지만 文益漸의 거룩하신 뜻과 물레를 만들어 낸 조상의 술기는 실탁래에 감아져 변함없이 칠백년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뜻과 술기를 바탕으로 우리 日新紡織은 보다 성실한 제품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을 한을을 정성으로 감은 면사, 화섬사, 혼방사는 물론 각종 면직물, 화섬직물, 혼방직물을 오늘날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조상의 술기를 실탁래에 감는 20년 日新의 기업정신은 곧 날로 새로워지고자하는 제품들로 표현됩니다.

日新紡織株式會社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164 / 전화 793-3701